



WBC를 빛낸 KIA 윤석민·이용규 인터뷰

“팀 V10 달성 후 해외진출 고려” “일에 진 게 너무 분해 메달 안 걸어”

■ 윤석민

-28일 팀에 합류하자마자 시범경기에 등판했는데 몸은 괜찮나?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돼 새벽 5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몸이 많이 피곤하지만 어제 등판은 예정된 거였고, 70개 투구를 목표로 나왔는데 경기 내용이 괜찮아서 47개를 던지고 내려왔다. 베네수엘라와 준결승 이후 오랫동안 마운드에 서지 않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

-대회 가장 아쉬웠던 점은?

▲원래부터 1라운드 세 번째 선발로 예정됐었다. 일본과 맞붙기 바라면서 등판 준비를 했는데 중국이 상대가 돼서 그게 가장 아쉽다.

-대회에 가기 전 일본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일본을 가장 꺾고 싶었다. 선발로 등판하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나와 성공적인 피칭을 했고, 일본도 우리와의 승부 때 고전했던 만큼 이번 대회는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베네수엘라전에서 칼리티 스타트를 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을 때다. 4강을 목표로 해서 갔는데 결승 진출을 앞둔 상황에서의 등판이라 더 기억에 남는다.

-그때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쳤는데.

▲원래 성격이 차분하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 물론 기분은 좋았다.

-일본전 결승 이범호의 동점타 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게 중계 카메라에 잡혔는데.

▲인터뷰도 잘 못하고, 경기중에도 큰 액션 없이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막아웃에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

-외국 언론이나 스카우트들의 호평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외국에 진출할 것 같고 물어봤다. 그런데 참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다. 나가겠다고 하면 KIA에 미안한 기분이 들고, 선수입장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해외진출은 팀의 우승을 이끈 뒤에야 생각해볼 것이다.

-대표팀 생활은 어땠나.

▲전세기도 타고,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편하게 야구를 할 수 있었다. 한식도 매일 속수로 공수되어 와서 음식 같은 것에서도 불편함이 없었다. 김광현(SK), 류현진(한화) 등 친한 선수들과 함께 야구를 해서 즐거웠다. 비슷한 연배의 최정(SK), 임태훈(두산)과도 이번에 많이 친해졌다.

-3년 전 WBC를 보면서 자신이 그 무대에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대표팀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그런데 실제로 도쿄돔, 롯데파크, 다저스타디움 같은 환상적인 구장에서 야구를 했다. 영광이다. 내년 아시안게임 등 대표팀의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다.

KIA 타이거즈의 투-타의 핵 윤석민(사진 왼쪽)과 이용규가 제 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팀의 준우승을 이끌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27일 저녁 팀에 합류한 윤석민은 28일 LG 트윈스와 시범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40년 동안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고, 29일 대타로 첫 출전한 이용규는 2타수 2안타로 맹활약했다. 팀 4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첫 발을 내딛은 두 스타를 시범경기 마지막 날인 29일 잠실 구장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하는데.

▲대표팀 생활도 즐겁기는 했지만, 팀 동료들 모두 너무 그리웠다. 올해는 꼭 제 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나의 가장 큰 바람이다.

-대회 중 부상까지 입었는데 컨디션은 괜찮나.

▲시차 적응이 안돼서 잠을 제대로 못자고 있다. 손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어 테이핑도 하는 등 고전하고 있지만 개막에 맞춰 정상 컨디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이용규

-인터넷 검색어 순위 1위를 하는 등 WBC 최고 인기스타가 됐는데.

▲대회 기간에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국내 상황을 듣기는 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대회 기간 중 두 번이나 다쳤더니 팬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다.

-베이징 올림픽 때도 야구 열풍이 대단했는데 WBC와 비교해보면 어땠나.

▲WBC가 야구만 다루는 야구 최고의 대회라서 그런지 열기가 더 뜨거운 것 같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도 다 출전했고, 그만큼 보람도 많이 느낀다. 야구는 틀이 까다로운 만큼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닌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야구팬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다. 어제도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동네에서 야구 하는 아이들을 봤는데 기분이 좋았다.

-'헬멧사건'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헬멧이 깨진 줄도 몰랐다. 중요한 대목이었는데 아웃이 됐고 수비를 하던 나가자마자 환호성도 지르고 기분이 안 좋아서 바닥에 던졌는데 두 쪽이 났다. 헬멧을 가지고 있는 KBO가 정식으로 의견을 물어오지는 않았지만 괜찮다면 의미가 있는 만큼 내가 소장하고 싶다. -고의적으로 사구에 맞기도 했는데.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불편한 타자일 수 밖에 없다. 키가 작으니까 타석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으니 스트라이크 잡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또 타석에 바짝 서서 승부를 하는 만큼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대회 가기 전 일본과 맞붙어 이기고 싶다고 했는데.

▲예선에서 다 지더라도 결승에서 이겨야 했다. 분하기도 하고 아깝기도 해서 메달을 목에 걸지 않았던 것이다. 언젠가 야구수업을 꼭 풀겠다.

-대표팀 합류 전 컨디션이 올라놓지 않았나? 대회 초반 좋지 않았던 이유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타격감도 안 좋아서 고전했다. 초반 주전으로 뛰지 못했는데 대표팀에는 각 팀의 최고 선수들만 모여 있는 만큼 벤치에 앉아있을 때 심정은 복잡하다. 승리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뛰는 선수들이지만 개인적인 욕심과 경쟁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타율이 저조했던 게 가장 아쉽다. 초반에는 컨디션이 안 좋았고, 나중에는 손 부상 때문에 타격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장 보람됐고, 기억에 남는 순간은. /서울=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들린 샷’ 신지에 단독선두

LPGA 인터내셔널 3R 10언더

이 정도면 '지존'의 샷이라고 불릴만 하다. 신지에(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에서 신들린 샷을 날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신지에(2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파파고 골프장(파72·6천71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보기는 1개로 막고 버디 7개를 쓸어담아 6언더파 66타를 몰아쳤다.

사흘 동안 10언더파 206타를 친 신지에(21·하나금융)가 카리 웹(호주·이상 9언더파 207타)을 1타차로 따돌리고 지난 8

일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이후 시즌 두번째 우승에 성공했다.

신지에(21·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에서 신들린 샷을 날리며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이밖에 지은희(23·힐라코리아)가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를 치며 5위에 올랐고 브라질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도 5언더파 211타로 공동 7위에 자리했다.

한편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2타를 잃으면서 공동 61위(7오버파 223타)에 그쳤고 작년 대회 우승자 오조아(멕시코)는 공동 19위로 3라운드를 마쳤다. /연합뉴스



신지에가 29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파파고 골프장에서 열린 J골프 피닉스 LPGA 인터내셔널 3라운드 18번홀에서 마지막 버디퍼트를 성공한 후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흥국생명 챔피언행 “GS칼텍스 나와”

김연경 맹활약...KT&G에 2연승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플레이오프에서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올해 챔피언결정전도 지난 시즌과 같이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패권을 다투게 됐다.

흥국생명은 28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08-2009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쌍공' 김연경(23득점)과 카리나(22득점)를 앞세워 KT&G에 세트스코어 3-1(16-25 25-22 25-13 25-18)로 역전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이애라 역대 3관왕

‘여자역사’ 이애라(광주은행·사진)가 제20회 전국춘계여자역도경기 대회에서 한국주니어인 기록 4개를 세우면서 3관왕에 올랐다.

이애라는 지난 28일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75kg급경기에서 인상 106kg, 용상 131kg, 합계 237kg을 들어 대회 3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인상 2차 시도 때 103kg을 들어올려 한국주니어인기록(종전 기록 102kg)을 세운 이애라는 이어 3차 시도에서 106kg을 기록, 두번째 신기록을 수립했다. 합계에서도 이애라는 234kg, 237kg을 기록, 232kg의 예전기록을 두번씩이나 갈아치웠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Table with real estate auction data including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information.

국민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

번영공인중개사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s.